

신부의 성숙

10/27 월요일

아침의 누림

히 6:1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벧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12:16, 18-19, 21, 24

16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19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1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이며, 성숙은 생명의 충만을 의미한다. ... 생명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갓난아기는 명백히 미성숙하지만, 성인은 성숙에 이른 사람이다. 사람이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는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충만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문제이다. ... 우리는 오직 변화를 통과할 때에만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대치될 필요는 없지만, 신진대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외적으로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본성이 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타고난 인간 생명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성이 변화된 인간 생명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성한 생명이 변화된 인간 생명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깊은 문제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2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적어도 신약의 두 절이 변화의 문제를 밝혀 준다. ... 로마서 12 장 2 절에서 ‘변화되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에도 나온다. 헬라어에 근거할 때,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이 두 절에서 사용된 ‘변화되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임을 암시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교정이나 개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과 생명에서 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작된다. ...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이 생명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계속 변화시켜 오고 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뀔수록, 신성한 생명은 더욱더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된다. 그러므로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충만의 단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성숙의 시점에 이른 것이다. ... 성숙은 우리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충만해질 때까지 신성한 생명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분배되는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 야곱이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그릇이다.

요셉이 팔린 때부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까지 적어도 이십 년의 기간이 있었다.

이 침묵의 시기 동안 야곱에게는 어떤 야심이나 흥미나 할 일이 없었다. 이 시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더욱더 야곱 안으로 분배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야곱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았다. 요셉을 잃음으로써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는 그릇이 되었다. ... 이제 요셉을 잃은 이후로 야곱에게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있게 되었다. 틀림없이 야곱은 날마다 요셉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야곱은 요셉이 나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결론지었지만,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어쩌면 요셉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야곱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밀어내고 하나님께 열리게 했다. 요셉을 생각할수록 그는 더 많이 열리게 되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야곱은 하늘을 향해 열린 그릇이었으며, 하늘에 속한 비가 끊임없이 그의 안으로 내리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졌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258-12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2

10/2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2-15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딤후 3:5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벧전 1:3, 2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마 5:48

48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엡 4:13, 15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 장 12 절부터 15 절까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했는지를 말해 준다. 이 일에서 그는 결코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목표이신자 쫓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항상 추구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자신의 추구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그가 인도하고 돌보는 믿는 이들에게 자신처럼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음으로 자라고 성숙에 이르라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가운데 (비교적)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생명 공과, 개정 2 판, 46 과, 3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마 5:48).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천국의 새 생명의 법에 대하여 끝맺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에 의해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명령은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우리는 그분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기대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주의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자라고 성숙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히 6:1)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관한 복음의 말씀, 곧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시작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절은 우리에게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즉 영적 생명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영적 생명 안에서 온전함 곧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영적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다.

영적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다. 믿는 이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자마자,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순전한 젖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벧전 2:2).

영적 생명에 있어서 믿는 이는 한 면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재배되는 식물과 같다(고전 3:5-9). 믿는 이는 사람으로서든 식물로서든 성숙하게 되려면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그리스도)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엡 4:15) ... 우리가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참된 것으로 취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이런 종류의 성장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제 조건이다.

골로새서 2 장 19 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리고 그분의 몸의 마디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분의 몸의 힘줄에 의해 함께 짜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러한 성장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이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으로 완결된다.(생명 공과, 개정 2 판, 46 과, 387-39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 공과, 개정 2 판, 46 과*

10/29 수요일

아침의 누림

약 5:7

7 그러므로 형제님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 4:1, 4

1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너울 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 때 같도오.

4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천 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

마 13: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계 14:4, 14-15

4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 장 7 절에서 야고보는 농부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예시로 사용한다. ...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 유일한 농부이시다. 우리가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참된 농부이신 그분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더 빨리 성숙하여라. 내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이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 이유는 내 백성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완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즉 그것을 우리의 영적 상태나 영적 성장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그들의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야고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0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 4 장 4 절에서 ... 주님은 추구하는 이의 목을 다윗의 망대에 비유하신다. ... 머리카락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고 (아 4:1), ... 우리의 목도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적인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린다(출 32:9, 행 7:51). ... 산에 보이는 염소 떼는 연인의 의지가 굴복되었음을 보여 주고, 다윗의 망대는 그녀의 의지가 부활 안에서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 준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굴복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의지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굴복된 의지는 산비탈에 서 있는 염소 떼와 같지만, 부활한 의지는 무기고로 건축된 다윗의 망대와 같을 것이다.

먼저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야 하고, 그럴 때 그것은 부활하여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고인 다윗의 망대와 같이 될 것이다. ... 만일 우리의 의지가 한 번도 주님께 굴복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모든 무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무기고가 될 수 없다. 모든 무기 중 대부분은 방어를 위한 것이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작은 방패와 큰 방패는 모두 방어를 목적으로 하에서 있기 위한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방어에 집중하여 원수의 모든 마귀적인 간교한 공격에 맞서 서 있다. 에베소서 6 장에 언급된 전투 장비의 항목 중 대부분도 방어를 위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서서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기만 하면 된다. 원수의 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는 이 망대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망대는 주님을 추구하는 이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이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성숙이다.

굴복되지 않은 의지는 한 면에서는 완고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유약하다. 원수가 올 때, 완고하고 굴복되지 않은 의지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항복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다. ... 그러나 우리에게 복종하는 의지 곧 산비탈에 있는 염소 떼와 같은 굴복된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다윗의 망대와 같은 표현을 갖게 될 것이다. 원수가 올 때, 우리의 의지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할 온갖 무기를 보유한 다윗의 망대와 같게 된다.

아가 3 장에서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른 비결은 그녀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한 것에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1 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6 장, 411-4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1 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6 장

10/30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1:28-29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히 12:10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요 10:10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1:8-10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성숙한’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지점에 이른’을 의미한다. ...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며,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며 온전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이 생명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1 장 28 절과 4 장 12 절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분투하는 것이 모두 믿는 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로 드러지고 세워지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생명 공과, 개정 2 판, 46 과, 385, 3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령의 징계는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가리킨다. 성령의 징계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과 일과 사건을 안배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된 일은 성령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 이외에 성령께서 외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에서 나타난다. ... 예를 들어, 성령의 일에 대해 언급하는 로마서 8 장은 먼저 생명의 법을 포함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로마서 8 장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모든 활동은

성령께서 기름 바르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로마서 8 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28 절)라는 말씀을 발견한다. 이 절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징계에 관하여 말한다. 이 외적인 징계의 일은 성령의 내적 움직이심과 인도하심에 협력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안배하고 결정하신다. 비록 이것으로 인해 많은 때 우리가 일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안배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징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기름 바르셔서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느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속성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인 기름바름은 그것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완고하고 성령의 내적인 기름바름에 순종하지 않으며 매번 거역한다면, 성령은 환경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징벌하고 징계하심으로써 복종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달콤한 움직임이자 그분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것인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자 그분께서 부득불 행하셔야만 하는 행동이다.(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2 장, 129-131 쪽)

성숙은 용량이 확장되는 문제이다. ... 한 번 하나님의 안배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용량이 확장될 기회를 한 번 잃는 것과 같다.

... 고난을 통과한 뒤에 믿는 이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 이러한 이유로 믿는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반드시 유의하여 생명의 성숙이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들은 생명이 성숙한 한 사람을 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 매일 은밀하게 받아 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는 볼 수 없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니 전기, 개정판, 19 장, 240-2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2 장

10/31 금요일

아침의 누림

창 43:14

14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와 베나민을 너희와 함께 보내 주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창 48:15-16

15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16 온갖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는 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눅 1:53

53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였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 5:6

6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5:10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9:16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 3:29

29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또한 우리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었다. 변화되기 위해 야곱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으로 밀어넣어져야 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 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야곱이 체험한 두 가지 주된 방면은 변화와 성숙이다. ...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와 우리 위에서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267-12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야곱의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본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야곱은 젊었을 때 항상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신뢰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다루심을 받은 후에 그가 신뢰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다. 온 일생을 거쳐 얻은 체험을 통해 마침내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관건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야곱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창 43:14)라고 말했다. 이제 야곱의 신뢰와 안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을 본다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자신을 위한 어떤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안식하였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친 체험을 통해 야곱은

그의 운명이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일생 동안 그를 목양하신 분으로 언급했다(창 48:15-16). 야곱이 창세기 48 장 15 절과 16 절에서 한 말은 삼일 하나님과 관계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야곱이 체험한 삼일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번 언급되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과, 야곱을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과, 그를 온갖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로 언급되신다.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이시며, 그를 온갖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이 바로 야곱이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인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파라오를 축복한 것이었다(창 47:7, 10). 파라오는 땅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축복하는 손 아래 있었다. 히브리서 7 장 7 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사실은 그가 파라오보다 윗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야곱은 파라오 앞으로 인도되자 그에게 예의를 차리거나 정략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야곱은 손을 뻗어 파라오를 축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와 종교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파라오 앞에서 나오면서 야곱은 한 번 더 그를 축복했다.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 곧 생명 안에서 성숙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넘쳐흐르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야 한다. 그럴 때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흘러 가게 된다(창 48:8-20).(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269 쪽, 메시지 94, 1278-128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1/01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19:5-9, 11-14, 16

5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6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11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 20:6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성숙한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이 된다. ... 우리 모두에게는 성숙의 방면과 다스리는 방면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 곧 이스라엘이었다. 그 당시에 한 이집트인에게 누가 그를 다스리는 사람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다면, 그는 히브리인이자 이스라엘인인 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 안에서 성숙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3, 1268-12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린양의 결혼은 대부분의 믿는 이들의 휴거 이후에 있을 것이다(살전 4:15-17). ... 어린양의 결혼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고후 5:10) 이후에 올 것이다. 모든 휴거가 있고 나서 결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어떤 믿는 이들이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 장 15 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절은 “그 일이 불타 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손실을 입게 될 구원받은 이는 틀림없이 결혼 잔치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 장 1 절부터 13 절까지에 따르면, 현명한 다섯 처녀는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거절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지 멸망할 것인지를 여부가 아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받을지 손실을 입을 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이들만이 이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은 공중에 잠시 머무실 것이다. 그 곳에서 주님은 정해진 몇 가지 일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 세워질 것이고, 결혼 역시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심판이 있고 결혼이 있는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께 선택받은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에서의 심판과 결혼은 모두 공중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 치러지는 것은 창녀가 멸망한 후, 모든 휴거가 있는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있는 후일 것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택받은 이들은 신부일 뿐 아니라 잔치의 손님일 것이다. 그 손님들은 단체적인 신부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9 장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우리는 큰 무리의 찬양을 본다. ... 6 절에서 큰 무리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음’이라고 묘사된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큰 천둥소리와 같은 찬양은 위엄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에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19 장 7 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9 장 8 절과 9 절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년왕국 동안의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1 장 2 절에 있는 아내인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이다. 이 방면을 위해서는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일 뿐 아니라, 함께 건축되어 한 신부가 된 이들이다.(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636-6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4

11/02 주일

아침의 누림

히 7:7

7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히 12:5-11

5 아들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건네신 다음과 같은 권유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6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7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건디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8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11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창 47:7, 10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

10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나서 그 앞에서 나왔다.